

慢性腎不全症 환자에서의 치과 방사선학적 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방사선학교실
김은경·박태원
서울의대 내과
김성권·이정삼

본 연구는 장기 혈액투석으로 치료 받고 있는 慢性腎不全症 환자에서 상·하악골 구조에 생기는 변화를 관찰해 봄으로써 腎性骨異養症(renal osteodystrophy)의 조기 발견에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하여 임상검사, 방사선검사(구내 X선 표준 film, panoramic radiograph, TMJ view, wrist X-ray)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장기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慢性腎不全症 환자 30명 중에 22명(72.3%)이 악골에 병변을 보였다.
2. 악골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소견은 骨致密度의 감소였다(18명, 60.0%).
3. 두번째로 많이 나타난 소견은 齒槽白線의 부분적 또는 완전 소실이었다(16명, 53.3%).
4. 그 외의 소견으로 下顎齒槽管的 흡수, 下顎顆頭的 흡수 등을 볼 수 있었다.
5. 악골과 wrist X-ray에서 동시에 병변을 나타낸 경우가 13명(4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악골에만 병변이 나타난 경우가 9명(30.0%), wrist X-ray에만 병변이 나타난 경우는 2명(6.7%)이었다.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서의 신경전도속도에 관한 연구

경희의대 내과
이재일·김영재
계활의학과
김경숙·안경희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서의 말초신경증(peripheral neuropathy)은 잘 알려져 있는 바이며 1963년 Choumont 등에 의해서 최초로 임상적으로 신경증상이 없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서 신경의 전도속도가 감소되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 후 여러 연구에서 혈청 creatinine 치나 creatinine 청소율과 신경전도 속도의 감소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1982년 3월부터 1983년 3월까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내과에 입원한 만성 신부전증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근전도를 시행하여 운동신경의 전도속도를 13명의 정상대조군과 비교 관찰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대상환자는 남자 13명 여자 5명으로 평균 연령은 42.6세이었고 혈청 BUN 치는 85.8 ± 41 mg% 이었으며 혈청 creatinine 치는 10.1 ± 4.3 mg% 이었다.
2. 정상대조군은 남자 8명 여자 5명으로 평균 연령은 44세이었고 심장질환 및 신경계 질환이 없었다.
3. 정중신경의 신경전도 속도는 신부전증 환자에서 51.14 ± 4.75 m/sec 로 정상대조군에서의 56.37 ± 4.43 m/sec 보다 유의있게 감소되어 있었다($p < 0.05$).
4. 비골신경의 신경전도속도는 신부전증환자에서 39.86 ± 6.26 m/sec 로 정상대조군에서의 46.57 ± 3.93 m/sec 보다 유의있게 감소되어 있었다($p < 0.01$).
5. 정중신경이나 비골신경의 신경전도속도와 혈청 creatinine 치나 BUN 치와의 상관관계는 없었다($p > 0.1$).

우리나라 透析療法의 現況

가톨릭의대 내과,
박병기·민병석

우리나라 부석요법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하여 1979년 및 1980년에 2회에 걸쳐 조사 보고한 이래 1982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보고 하고자 한다.